

3월 다섯째주 청소년부 가정예배 인도자 매뉴얼

<p>#예배준비</p>	<p>1)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정한다. (주일 저녁 8시 권장) 2) 가정예배지를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준비한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주일예배지 보기” 클릭!) 3) 인도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가정예배를 인도한다. (형식은 변경할 수 있다.)</p>
<p>#예배인도</p>	<p>1) Ice Break : 예배 전 간단한 질문이나, 영상 하나를 보고 난 소감을 짧게 나눈다 ‘작아서 좋은 삶, 이끼’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고난 후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란 무엇인지 짧게 나누어 봅시다.</p> <p>2) 예배로의 부름 및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성경책 참조) - 인도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p> <p>3) 찬 양 : 꽃들도 - 인도자의 멘트에 따라 찬양을 부르 고, 자연스럽게 합심기도로 넘어간다. ※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가능한 악기들을 활용한다.</p> <p>4) 합심기도 : 예배지에 있는 기도제목 등으로 인도자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 한다.</p> <p>5) 성경봉독 : 가족 구성원이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합독해도 되고, 전체를 합독해도 된다. - 인도자 : 1)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41절부터 45절까지 큰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p> <p>6) 설 교 - 예배지의 관찰질문을 통해 본문을 먼저 들여다 본다. - 아래의 설교문을 참조하여 인도자가 말씀을 나눈다.</p> <p>일곱 살 아이들이 방에 모여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방을 들여다 본 엄마가 말합니다. “어머, 우리 아가들 인형놀이 하는구나?” 그랬더니 한 아이가 통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니 오, 병정놀이 하는데요?” 그러자 엄마가 재차 묻습니다. “아니, 바비인형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병정 놀이니?” 그러자 아기가 대답합니다. “애네가 갑, 을이구요, 우리는 병, 정이에요.”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분과 계급 사회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병, 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신분상승을 통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이를 악물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니다. 이것이 총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묻는 제자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뜬금없는 청탁(?)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 한 사람은 주님 우편에, 또 한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양쪽에서 예수님 잘섬기겠다는 다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날이 되면 자신들을 최고 권력에 앉혀달라는 당돌한 청탁일 뿐입니다. 이에 나머지 열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들의 탐욕에 대한 비판일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으니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열두명 모두 같은 마음이였을 뿐입니다. 눈치만 봤던 것이죠.</p>

<p>#예배인도</p>	<p>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먹고 사는 일, 높은 자리로 가는 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땡땡거리며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며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시고는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44-4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정치력과 권력, 돈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그 것에 굴종하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자신의 신분과 소득정도에 상관없이 기꺼이 낮추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자를 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과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니가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은 곳에 가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그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할 것아니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 땅을 회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세상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런 섬김과 희생의 원리가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모습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높아지지 않으면 설움을 당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 묵묵히 따라 가게 해주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신 예수님처럼 가족과 친구와 세상을 섬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p>
	<p>7) 생각나누기 : 설교 말씀을 듣고 질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본다.</p> <p>Q1. 권력 쟁취를 위해 논쟁하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42절). 공생애 기간 동안 선생이며 주님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p> <p>Q2.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22-25’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세요.</p> <p>Q3. 우리 청소년부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생각과 의견을 모아보세요</p> <p>8) 결단 및 적용</p> <p>1) 내 꿈과 내 비전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 한주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결단해 봅시다. (인도자는 결단과 적용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보고, 다음번 예배 때에 점검해 주는 것도 좋다)</p> <p>2) 결단하고 적용한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한다.</p> <p>모든 합심기도가 끝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로 정리한다.</p> <p>9) 주기도문</p> <p>‘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는 인도자의 멘트와 함께 다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 한다.</p>
<p>#교제의 시간</p>	<p>1) 예배가 끝나면 서로를 향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포옹, 하이파이브로 서로를 응원하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면 함께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가정예배의 소감을 나눈다.</p> <p>2)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누나(오빠, 형, 언니)는 동생에게, 동생은 누나(오빠, 형, 언니)에게 ‘나의 OO이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한다.(쑥쓰러우면 카톡으로 대신한다)</p>